



다산의 외로운 넋인듯 오늘도 붉은 동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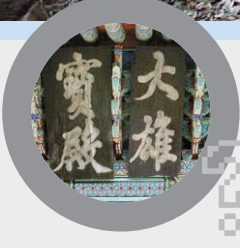
붉은 오솔길 백련사.

마당 끝에는 남도의 봄 바다가 다가오고,
도랑엔 아직도 들성들성 겨울바람이 떠돈다.
뜬금없이 마당에 선 부도의 그림자가 응진전 돌계단을 오르고,
대웅보전의 빛바랜 단청은 편액에 걸린 명필 원교(圓峯)·이광사 李匡師의
글씨를 읽고 있다.

요세(了世) 스님이 백련결사(白蓮結社)의 원력을 펼친 도랑 백련사.
만덕산 능선 너머엔 다산(茶山)·정약용 丁若鏞의 유배처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있고,
다산은 유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혜장(惠藏) 스님을 만나러 백련사를 다녔다고 한다.

겨우내 얼었던 돌담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동백숲에서는 산새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그 옛날 다산이 유배의 쓸쓸함을 밟고 걸었던 오솔길에는
오늘도 붉은 동백이 밝힌다.
봄이 오는 길목, 백련사 오솔길에서 만난 부도에는 문자 하나 볼 수 없고,
떨어진 동백꽃잎엔 찰나의 미련도 보이지 않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련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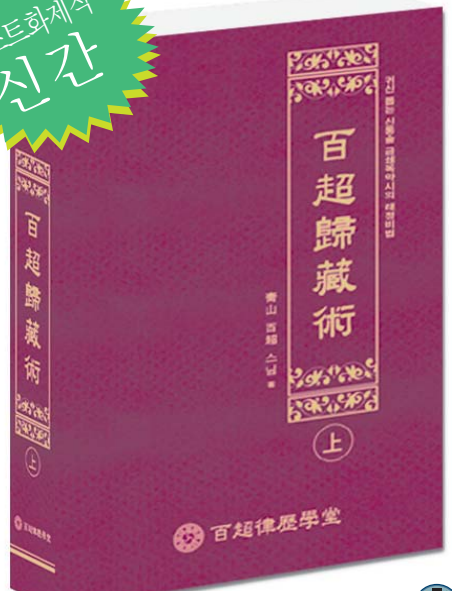
- 통일신라 생왕(문성왕 재위 839~856) 때 무염(無染, 801~888)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 고려시대 월출산 약사난야에 주석하던 원묘국사 요세 스님을 최후 최홍 형제와 이인천 등이 만덕산으로 모시고 1211년(희종7)에 백련사를 중창하고 1216년(고종3)에 낙성법회를 열었다.
-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 왜구의 노략질로 폐사되다시피 했지만 그 명맥을 유지했으며 1760년(영조36)에는 큰 불이 일어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절의 여러 스님들이 중건을 서원하고 1762년 대법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도엔 봄바람 다가오고
도랑엔 들성들성 떠도는 겨울바람..

동백숲엔 요란한
산새소리...

베스트하계작
신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을 개인지도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똑똑 알 수 있게 초시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 百超 백초스님